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

[2021.05.]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
(junhyun.kim@ekosa.or.kr, 02-559-3548)

< Executive Summary >

□ 글로벌 철강사 1분기 경영실적

○ 글로벌 주요 철강사 1분기 실적 역대 최고수준 기록

- 경기회복 및 철강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에 기여
 - (ArcelorMittal) 매출액 \$161.9억(전년동기비 47.5% 증가), 영업이익 \$26.4억(전분기대비 32.2%)
 - (일본제철) 매출액 ¥1.4조(전년동기비 4.4% 감소), 영업이익 ¥788억(흑자전환)
 - (바오우강철) 매출액 838억위안(전년동기비 41.5% 증가), 순이익 53.6억위안(전년동기비 248%)

□ 4월 글로벌 조강생산 169.5백만톤

○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로 전년비 23% 증가

- (중국) 4월 누적 생산 374.6백만톤으로 전년비 15.8%, '19년 대비 18.8% 높은 수준
- (미국) 5월말 가동율 80% 돌파, 4월 누적 생산 전년비 2.8% 증가
- (인도) 4월 생산 전년비 폭발적 증가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승세 둔화 전망
- (독일) 4월 생산 전년비 31.5% 증가, '19년 수준으로 회복

□ 중국 정부의 가격 규제안 발표 영향

○ 정부의 가격규제로 중국의 철강재 내수/수출 가격 동반 하락

- 최근 철강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인상 등에 나섰으며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가격 안정화 개입의사를 밝힘
- 상무회의 이후 중국 철강재의 내수 및 수출가격이 10% 이상 하락했고,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하락세로 전환
-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가 중국 철강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와 나아가 글로벌 철강가격에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

